

SK바이오팜, 영업익 250% ↑... ‘빅 바이오텍’ 선순환 궤도

1분기 매출 2279억, 영업익 898억
세노바메이트로 이익 창출하고
현금흐름 R&D에 재투자 구조
TPD 중심 R&D 전략 공개



엑스코프리.

SK바이오팜이 자체 개발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처방 증가로 1분기 수익성이 대폭 증가했다. 회사측은 세노바메이트를 통해 창출되는 이익을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하는 구조가 본격화되며, ‘빅 바이오텍’으로 가는 선순환 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SK바이오팜은 실적 공개와 함께 표적단백질분해(TPD)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파이프라인 및 독자 플랫폼 기술 중심의 연구개발(R&D) 전략을 공개했다.

◆ 영업이익 전년 대비 250% 성장

SK바이오팜이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매출 2279억원, 영업이익 898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94%, 전년 동기 대비 약 250%라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당기순이익은 1027억원을 기록했다.

회사측은 R&D 및 마케팅 비용이 전년 대비 증가한 상황에서도 영업이익이 약 900억원에 근접하며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세노바메이트를 통해 창출되는 지속 가능한 이익과 현금 흐름을 R&D

에 재투자하는 구조가 본격화되며, 국내 유일의 ‘빅 바이오텍’으로 가는 선순환 궤도에 진입했다는 설명이다.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의 미국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한 1977억원을 기록하며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처방 지표 역시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난 3월 기준 월간 총 처방 수(TRx) 약 4만7000건 가까이 기록했으며, 신규 환자 처방 수(NBRx)는 이번 1분기에 분기 평균 최대치를 경신했다.

세노바메이트는 적응증 확대와 제형 다변화를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올해 3월 현재액 제형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신약허가신청(NDA)을 완료했으며, 전신강직-간대발작(PGTG) 및 소아 환자를 포함한 적응증 확대도 연내 신청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XCOPRI의 미국 판매량을 기반으

로 후속 제품 도입도 추진 중이다.

◆ TPD 중심 독자 플랫폼 기술 공개

SK바이오팜은 이날 R&D 세션을 통해 표적단백질분해(TPD)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파이프라인 및 독자 플랫폼 기술 중심의 R&D 전략을 공개했다.

파이프라인 측면에서는 p300 타깃 분해제 ‘SKT-18416’의 전임상 결과가 상세히 다뤄졌다. p300은 전사 복합체의 핵심 단백질로 암세포 성장에 필수적이거나, 상동성이 매우 높은 CBP 단백질과의 구조적 유사성으로 인해 기존 저해제들은 혈액 독성 등의 부작용 한계가 존재했다.

SKT-18416는 전임상 결과 CBP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p300만을 선택적으로 분해하는 기전을 통해 우수한 안전성을 확인했다. 실제 약효 평가에서 전립선암, 다발성 골수종 및 CBP 변이 암 모델을 대상으로 강력한 종양 성장 억제 효과를 입증했으며, 종양 특이적 의존성이

높은 암종에서도 항종양 효과를 보였다. 해당 과제는 현재 임상시험계획(IND)을 목표로 연구 중이며, 2027년 상반기 IND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자 플랫폼 ‘MOPED TM’도 소개됐다. MOPED TM는 단백질 간 상호작용을 유도해 특정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분해하는 물질을 발굴하는 기술로, 기존 접근으로는 공략이 어려웠던 단백질 타깃까지 확장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회사 관계자는 “SK바이오팜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두개의 FDA 승인 혁신신약을 발굴한 CNS 분야 저분자화합물 신약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이라며 “신약에서 창출한 지속 가능하고 성장하는 수익을 TPD·RPT 등 차세대 파이프라인과 플랫폼에 재투자 해왔으며, 앞으로 가시화되는 성과들을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metro

“달려 벌어오는 ‘K-디바이스’”... 해외 비중 90% 성과

에이피알 1분기 잠정 실적

매출 5934억, 영업익 1523억
전년비 123%, 173.7% 급증
美 매출 250.8%... 실적 견인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에이지알’의 신제품 부스터 글로우. /에이피알

‘K뷰티’ 기업 에이피알이 전 세계 안방 화장품에 ‘K디바이스’를 울리며 역대급 달려 벌이에 성공했다. 화장품 수출을 넘어 고부가가치 품목을 내놓으며 미국 등 글로벌 시장을 장악해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며 글로벌 짝꿍을 터뜨렸다.

에이피알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으로 연결 기준, 매출액 5934억원, 영업이익 1523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3.0%, 173.7%씩 급증한 수치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창사 이래 단일 분기 최대

은 올해 1분기 해외에서 전년 동기 대비 179.9% 늘어난 5281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18.1%p 증가한 89.0%다.

미국 매출이 250.8%의 큰 폭으로 성장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미국에서만 2485억원의 매출을 거뒀고 해당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9%에 달한다.

이러한 상승세는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온라인 채널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에이피알은 오프라인 채널 확장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에이피알 측은 현재 미국 매출에서 현지 대표 온라인 채널인 아마존에서 발생한 매출 비중이 60% 수준으로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얼타뷰티, 대형 마트 등 복수 오프라인 채널 입점을 순차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에이피알은 오프라인 채널 확대 전략은 미국뿐 아니라 일본 시장에서도 주효하다. 일본 매출은 5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8% 증가했으며, 현지 드럭스토어·바라이어티슈 등 오프라인 유통망 확장과 함께 제품군 다변화 효과가 실적 성장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쿠팡, 라쿠텐 등 주요 온라인 채널에서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온·오프라인 균형 성장을 실현했다.

같은 기간, 기타 지역 매출 역시 601억 원에서 1900억원으로 216.1% 늘어나며 글로벌 전반에서 성장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에이피알은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17개 국가 내 글로벌 뷰티 편집숍 세포라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메디큐브를

선보이고 있다.

아울러 뷰티 디바이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6% 성장한 1327억원의 매출을 울리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에 힘을 보탤다.

에이피알은 사업 핵심 축인 뷰티 디바이스 부문에서 독주 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외 일본에서 흥행 중인 차세대 기기 ‘부스터 프로 X2’가 오는 6월부터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전역에 주력 제품으로 전격 투입된다. 또 초음파 디바이스를 비롯해 올해 안에 1~2종의 신제품 추가 출시가 예고되어 있다.

외형 확장과 함께 수익성 측면에서도 ‘청신호’를 켜다. 올해 1분기 현지 수요에 적극 대응해 약 200억원 규모의 항공 운송비를 투입하며 물류비 부담을 감수했으나, 향후 공급망 안정화에 따른 비용 효율화에 나서면서 이익 구조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는 2분기부터 200억원 초중반 규모의 미국 관세 환급금까지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삼성 라이프사이언스 펀드, 美 벤처기업 투자 단행

‘카토그래피 바이오사이언스’
ATLAS·SUMMIT 플랫폼으로
항체 치료제 설계 역량 갖춰

후보물질은 2026년 초 임상 1상에 진입하여 현재 환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은 이번 투자를 통해 카토그래피 바이오사이언스의 유전자 데이터 기반 항원 발굴 및 신약 개발 역량과 연계한 글로벌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차세대 항암제 분야의 유망 기술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형남 삼성바이오로직스 연구소장(부사장)은 “카토그래피는 암 종별 단일 세포 유전자데이터와 바이오인포매틱스를 결합해 치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차세대 생명공학 혁신 기업”이라며 “전 세계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혁신 기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캐빈과커 카토그래피 바이오사이언스 CEO는 “삼성은 종양 생물학을 정밀하게 분석해 차별화된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자

사의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최적의 파트너”라며, “신기술과 최첨단 생물학적 공학의 가치를 인정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삼성 라이프사이언스 펀드는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공동 출자하고 삼성벤처투자 운용하는 벤처 투자 펀드로, 바이오 분야의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을 발굴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ADC(항체-약물 접합체) 링커 기술을 보유한 스위스 기업 ‘아리리스 바이오’와 ADC 기반 뇌종양 및 항암제를 개발하는 삼성의료원 기술 기반 기업인 ‘에임드바이오’는 물론 ‘브릭바이오(미국)’와 ‘프론티라인(중국)’ 등에 투자하며 항암제 개발에 주력해 왔다.

/이세경 기자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日서 K-럭셔리 선택

오는 12일까지 옛코스메 도쿄서 행사

아모레퍼시픽의 글로벌 포트폴리오가 일본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특히 럭셔리 뷰티 브랜드인 ‘설화수’를 전면 배치해 일본을 아시아 핵심 요충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12일까지 일본 최대 뷰티 매장 옛코스메 도쿄에서 설화수 브랜드 행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일본은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소비자 기준과 브랜드 인목이 높은 시장이다. 현지 시장 특성을 반영해 이번 행사 역시 설화수가 구축해 온 브랜드 철학과 가치를 알리는데 중점을 뒀다. 브랜드 대표 스킨케어 제품을 직접 체험하며 동양적 미학과 현대 과학을 결합한 브랜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설화수의 일본 진출에는 브랜



옛코스메 도쿄에 꾸며진 ‘설화수’ 행사장 외부 전경. /아모레퍼시픽

드 경쟁력이 뒷받침됐다. 최근 글로벌 증권사 CLSA가 발간한 보고서 ‘스킨&골드 아시아’의 가격 요소를 제외한 브랜드 선호도 조사 항목에서 설화수는 스킨케어 전 카테고리 기준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아모레퍼시픽은 앞서 올해 1분기에도 일본에서 매출 성장을 이뤄냈다. /이청하 기자